

중잖아  
오늘은 제대로  
돈이 있으니까

아니...  
오늘은...  
좀...

そして兄は  
娼に墮ちる

そしてあにはあそびめにおちる

앞으로  
한 시간이다  
돈이 궁하지?  
엘리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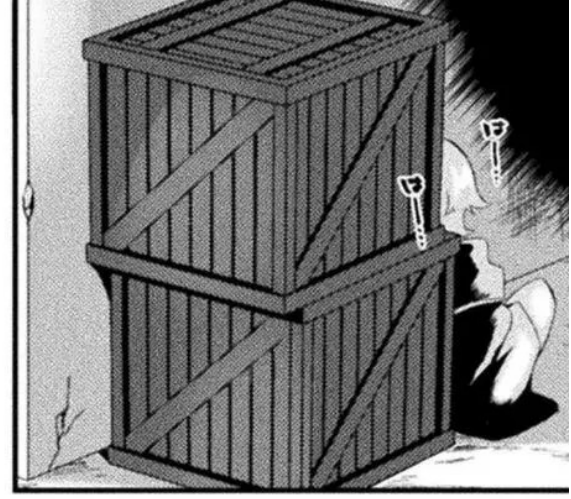
나중에  
밥도  
쓸 테니까

그게  
아니라...  
시간이...  
그만  
괜찮죠?

창녀 주제에  
점잔빼기냐!!



위험했어...



나도 좋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 
아픈 여동생을 위해...  
비싼 약값을 벌어야 해...



변두리의 낡은 창관에서 나 엘리아스는 여자 모습으로 창부로서 일하고 있다

사실은 백마술사... 인데 육체변화의 영약밖에 못만들고... 돈도 별로 안 되고 이런 시골에서는 돈 벌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



남자인 내가 남자에게 머대로 범해지는 일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... 하지만 여동생의 미소를 위해서라면 이런 굴욕도 견딜 수 있다



하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과잉태할 수도 있다  
부작용이라 갈수록 더 많이 벌어서 나오면 좋겠지만...



이 녀석...  
이 근처에서  
유명한  
불량배다...



왔다고  
엘리스

가...  
감사합니다...



강탈한  
관에는  
적절한  
폭력을  
강요한다...



젖는 거  
도와줄게

웃...  
가  
감사합니다



자  
빨리 벗어

네 네...





빨리 끝나라...



영상 기록 수정...?



?

아 그래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





응?

う...  
ま...  
키면 돈을  
들벌약도/수  
의사한테  
진찰을  
수도 없  
그러면  
여동생은...!

히



돈이  
필요해요...!

주위에  
말하는  
것만은...

저 저기...  
뭐든 말하는  
대로 할 테니



난폭하게  
범해지고  
그날 매상도  
거의 전부  
빼앗긴다...

저  
정말  
이예요  
...!

오늘 더  
벌고  
있잖냐

어이 정말  
이게 다냐?

그리고  
그 녀석은  
거의 매일  
방문했다

굴욕적인  
행위를  
강요  
당한다



굴욕적인  
복장을  
입게 하고



그리고 나서  
점차 하는  
짓이  
심해진다...



물론  
그 돈은  
모두 놈의  
손에  
들어갔다



그  
복장으로  
밖에  
데려가서

다른  
남자에게  
팔리기도  
했다

놈이 동료들  
불러서  
십여 명의  
남자들에게  
번갈아 가며  
범해지기도 했다

많은 손에  
몸을  
만져지고...  
머리에 열이  
나서 자꾸  
새하얗게  
되어간다.....

이 행위가  
자꾸자꾸  
쾌락에  
연결되  
있다는 걸  
알았다

두 손으로도  
세지 못할  
정도로  
질내사정  
되었을 때





만약 조만간  
여동생에게  
손을 대거나  
한다면.....



계속 혐오하고  
잇서는데 요즘은  
이런 무의식적으로  
남자에게  
아양떠는  
몸이 되었다



어떻게  
해서든지  
이 녀석으로부터  
도망가지 않으면...  
우리는...





빠... 빨리...

잠깐 한대 핀다



왔다고 엘리스



뭐야 기대하고 있는 거야?

그럼 바라는 대로 해 주지



그런 거... 아냐!

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야!











스스로  
허리  
흔들고  
말이야



남자에게  
범해지는 것은  
모욕이라고  
떠들더니만  
자지 박혀서  
좋아하고 말이야  
남자는커녕  
인간으로서  
끝났잖아

암컷화한  
육변기  
창부라니  
눈 뜨고  
볼 수 없군



확실히  
마조  
암컷이야

이제  
수컷의  
모습은  
전혀 없군  
그래



바보같은  
낮짝 보이지  
말고 지금  
보지 상황을  
설명해라

네  
네에

더 자지국물  
기대하고  
안에서  
꾸욱대고  
있어요♡

흉악한 거근으로  
질내가 쭈경쭈경  
해서 보지에서  
암컷국물  
넘쳐서 멈추지  
않아요♡

더 안쪽에♡  
자궁  
망가져♡



즐거운데ㅋ

뭐 다 귀찮으니까  
직접 움직여

네에에  
♡





아무래도  
좋아...

왜냐하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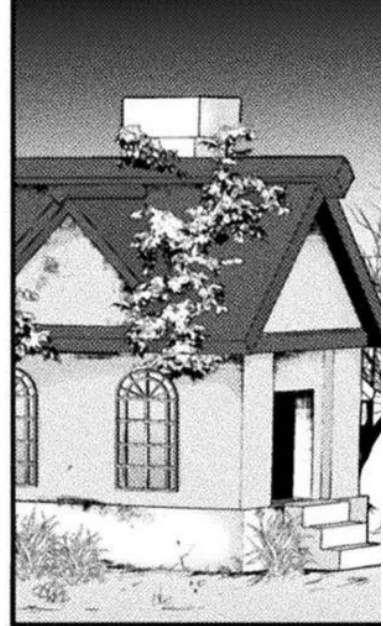
아컷의  
몸은

기분  
좋은니까

아컷의  
몸은



오빠...  
늦네



여자가 되고  
창부가 되어  
정말 좋아하는  
자지에게  
둘러싸여...

지금까지  
무엇에  
저항하고  
있었던  
것일까...  
한  
중요  
일이었던  
것  
같기도  
하지만...

지금 나는  
너무 행복해...



끝